



“우리도 바벨 내던지는 쾌감을...” 내년부터 일반인 역도대회 열린다

역도연맹 “전국 6개권역 훈련장 개방...기술 자문도”

엘리트 선수의 전유물인 역도대회를 내년부터 일반인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한역도연맹은 엘리트 선수들의 경기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일반인 대회를 전국역도대회의 일부로 개최한다는 계획을 이르면 이달 말 이사회를 열어 확정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역도를 훈련하는 일반인은 당장 내년 춘계대회부터 연간 6~7차례 대회에 출전해 체급별로 기록을 작성하고 순위 경쟁도 벌일 수 있을 전망이다.

연맹은 2011년에는 일반인 대회를 엘리트 선수들의 대회에서 독립시켜 별도 대회로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연맹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일반인 출전자 1천여명을 확보하겠다”며 “이들 동호인에게는 ‘꿈의 무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도연맹은 생활체육화 방침에 따라 예초 벤치 프레스나 약력(손아귀 힘) 측정 등 대중이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종목에 개발한다는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장미란과 사재혁, 윤진희, 안용권 등의 세계무대 활약에 매료돼 인상과 용상 기술을 배우려는 동호인들이 급증하자 대회 조직 대상을 역도 자체로 바꿨다.

연맹은 기술 전문에 대한 동호인들의 문의가 쇄도함에 따라 현재 서울, 수원, 대구, 광주, 부산, 제주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지정된 훈련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전문 지도자가 기술도 자문하고 있다.

장미란은 일반인 역도와 관련, “역도는 위험하거나 어려운 운동이 아니다”며 “중량을 적절히 조정하고 자세를 제대로 배운다면 훌륭한 전신운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영광서 한국 배드민턴 최강전

20일 영광군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09 한국배드민턴 최강전' 여자 복식 결승전에서 대교는 높이 하정은이 박선영과 짝을 이뤄 전북은행 김민정, 장혜옥 조를 상대로 강 스매싱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봅슬레이 연속 '톱 10'

아메리카컵 2인승 6·7차전

봅슬레이 대표팀이 2009-2010 국제봅슬레이연맹(FIBT) 아메리카컵 2인승 6, 7차 대회에서 연속 톱10을 기록하며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출전권 획득의 희망을 밝혔다.

강광배(강원도청)가 드라이버를 맡고 김동현(연세대)이 브레이크맨으로 나선 대표팀은 20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레이크플래시드에서 치러진 아메리카컵 2인승 6차 대회에서 56초52로 9위에 올랐고, 연이어 치러진 7차 대회에서도 57초06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해 캐나다(57초06)와 공동 10위를 차지했다.

대회 일정 때문에 한 차례 레이스만으로 6, 7차 대회의 순위를 결정할 가운데 전날 5차 대회에서 10위에 올라 이번 시즌 아메리카컵 2인승에서 첫 '톱10'의 기쁨을 맛봤던 대표팀은 세 차례 대회를 치르며 연속 '톱10'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한국과 일본이 2인승과 4인승 종목 모두 국가별 랭킹에서 17위 내에 들지 못한다면 아시아에 배당되는 1장의 출전권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

하지만 아시아에 주어지는 티켓은 2인승과 4인승을 통틀어 단 1장뿐이어서 한국과 일본이 2인승과 4인승에서 거둔 성적을 각각 비교해 우위에 있는 국가가 2인승 또는 4인승 한 종목만 출전하게 된다. /연합뉴스

한국 J0아이스하키

중국 꺾고 조 4위

2010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 출전한 20세 이하 한국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중국을 꺾고 조 4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조흥준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0일(한국시간) 새벽 헝가리 데브레첸 포닉스홀에서 열린 대회 디비전2(3부리그) A조 마지막 경기에서 중국에 5-0으로 이겼다.

이로써 한국은 폴리그 형태로 치러지는 대회에서 최종 전적 2승3패로 조 4위에 올라 1위에게 주어지는 디비전1 승격권을 얻는데 실패했다.

멕시코와 중국에게 큰 점수차로 이겼지만 영국, 헝가리 등 유럽 강국들에 연달아 대패하면서 실력차를 실감해야 했다. /연합뉴스



21일(월)
▲이안갑 전국남녀종합탁구선수권 (13 : 50-KBSN SPORTS)
▲여자 프로농구 <신한은행> 삼성생명 (16 : 50-SBS스포츠)

김대련 동메달 2개

유소년역도선수권 69kg급

김대련(15·충북 영진중)이 제11회 아시아유소년역도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 2개를 목에 걸었다. 김대련은 20일(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살라후딘 스포츠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69kg급에서 인상 112kg과 용상 147kg을 들어올려 두 부문 모두 3위에 올랐다. 합계도 259kg로 인상이 기대됐으나 /연합뉴스

라자드 마지드(260kg·이라크)에게 1kg 차이로 뒤져 동메달을 놓쳤다. 인상 1, 2위는 무하마드 베갈리에프(129kg·우즈베키스탄)과 분숙 파이랏(120kg·태국)이 차지했고, 용상 금메달과 은메달은 베갈리에프(158kg)와 마지드(148kg)에게 돌아갔다. /연합뉴스

포항, 아틀란테 꺾고 3위

클럽 월드컵 바르샤 우승...메시 MVP

포항 스틸러스가 2009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에서 승부차기 대결 끝에 승리해 3위로 대회를 마감하며 아시아 챔피언 자존심을 지켰다.

포항은 19일(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의 셰이크 자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북중미 챔피언 아틀란테FC(멕시코)와 3-4위 결정전에서 전, 후반 90분을 1-1로 마친 뒤 승부차기 대결 끝에 백업 골키퍼 송동진의 눈부신 선방과 마지막 키커 김형일의 득점포를 앞세워 4-3으로 이겨 3위 상급 250만달러(한화 29억원)를 챙겼다. 이날 승리의 주인공은 에스투디안테스(아르헨티나)와 준결승 때 퇴장으로 결장한 주 /연합뉴스

선수문장 신화용을 대신해 골키퍼 장갑을 낀 무명의 송동진이었다.

송동진은 승부차기에서 아틀란테 두 번째 키커 라파엘 마르케스의 공을 막아내며 승리의 일등공인이 됐다.

유럽축구 챔피언 FC 바르셀로나가 대회 출전 사상 처음으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바르셀로나는 20일(한국시간) 남미 챔피언 에스투디안테스(아르헨티나)와 결승에서 선제골을 내줬으나 후반 43분 페드로의 동점골과 연장 후반 4분에 터진 메시의 역전골에 힘입어 극적인 2-1 승리를 낳았다. 이날 결승골을 터뜨린 메시는 대회 최우수선수에 뽑혔다. /연합뉴스



19일(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의 셰이크 자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9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 3.4위전 포항 대 아틀란테(멕시코) 경기. 포항의 골키퍼 송동진이 승부차기에서 몸을 날려 볼을 막아내고 있다. /연합뉴스

흥명보호 '속적' 일본에 1-2 역전패

한국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속적' 일본에 선제골을 넣고도 내리 두 골을 내주면서 역전패를 당했다.

흥명보호(40)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9일 창원축구센터 메인스타디움에서 열린 일본 올림픽팀과 친선경기에서 전반 36분 조영철이 선제골을 넣었지만 후반 31분과 후반 42분에 일본의 야마다 나오키에게 연속골을 내주면서 1-2로 패했다. 이로써 한국은 일본과 올림픽 대표팀 간 역대 전적에서 4승4무4패로 동률을 이뤘지만 최근 5경기 연속 무승(3무2패)의 아쉬움을 남겼다. /연합뉴스

동신여고 최미란-임수민組 준우승

15세부 장흥 대덕중 최다해-최다희組도 銀

국제주니어정구대회

동신여고 최미란-임수민 조와 전남 대덕중 최다해-최다희 조가 제1회 일본 국제주니어정구대회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다.

최미란-임수민 조는 19일(한국시간) 일본 미에현 요카이치에서 열린 대회 첫 날 18세부 여자복식 결승에서 고바야시 나오-사토 나츠히(이상 일본)에 0-5로 패해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다고 선수단이 20일 알려졌다.

15세부 여자복식 결승에서도 최다해-최다희 조가 우승 문턱서 분투를 삼키고 맞섰다.

김예경-김미연(이상 농협중앙회) 조는 21세부 여자복식 결승에서 이슬이-이슬비(이상 안성시청)를 5-3으로 물리치고 정상에 올랐다.

남자 21세부 복식 결승에서도 김동훈-김법준(이상 대구가톨릭대)이 가시마 테페이-나카모토 게이아(이상 일본)에 0-5로 패했다.

이번 대회는 세계 20개 나라 300여 명의 선수단이 출전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다산공인중개사

☎ 010-7154-6896 ☎ 872-8004

- ▶빌딩(임대용, 투자용)
 - 토지 177평, 건물 740평 - 매가 30억
 - 보통급 16억/월세 750만/주차 6억
- ▶신축 무인텔 매매(여관)
 - 토지 735평, 건물 830평
 - 객실 34실(매가 68억)
- ▶상가매매(점단)
 - 아파트 500세대 앞 1층 48평 - 매가 12억
 - 광양읍 : 의류, 편의점, 인형, 푸드
- ▶상가임대
 - 아파트 1300세대 입구 (복구연제동) - 1층 11평
 - 임대료 월당 500만원 전월임 가능

● 구 합 ●

- 골프 연습장 부지 - 광주권
-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부지
- 창고부지
- 공사지가 50%미만 부동산
- 투자용 부동산

부동산 매매, 신축, 임대 등에 관하여 무료 컨설팅 하여 드립니다.

광문공인중개사

☎ 062-365-1920

● 모빌 임대 매매 전문 ● 교환

- 신축 무인텔 급임대
 - 무인텔 월매출 5천이상
 - 4억5천에 월 1,500만원
 - 신축모델 부지다량 확보!
- 일반모텔 월매출 5천이상
 - 급 매매가 15억원
 - 은행대출 8억
 - 실투자금 7억 OK
- 전국 모빌 임대 매매 전문
 - 손님이 와글와글하고 일찌찌게 모델!
- 순천 모텔 임대
 - 보증금 3억 월 900만원
 - 목포 해안도로쪽 모텔
 - 급 매매 다량 확보!

● 목포 → 모텔, 사무나, 주차장, 세차장

● 대지 → 350평, 건평 600평 월순소득 2,000만원 이상 확보

● 교환조건 → 모텔, 땅, 토지, 임야 해남권 → 독점 모델 매매가 5억7천 월순소득 1,500만원 이상 확보!

● 모빌임대사업

- 3~4억 투자하시면 매월 1,000만원 이상 소득 확보!
- 등기율 100%

010-7637-7743, 010-4703-8223, 011-623-8972

동북아 경제 중심지.. 서해안, 새만금을 주목하라!

● 집종된 추천 물건 ●

- 상록해수욕장이 보이는 펜션부지
 - 300평(전) - 평당 80만원
 - 150평(전) - 평당 80만원
 - 470평(당) - 평당 150만원(상가 및 펜션, 분할가능)
- 격포 바닷가, 펜션, 모텔부지
 - 500평 - 평당 180만원(전, 모텔, 1동 포함)
- 전원주택 및 투자부지
 - 1000평 - 평당 25만원(당)
 - 500평 - 평당 80만원(부인명 앞, 주택1동 포함)
 - 1200평(전) - 평당 35만원 (2~300평 분할가능)
 - 투자물건 다량 확보(소매부터 다액까지)

* 새만금 관광시대 임박으로 펜션 투자시, 광주지역 원룸부지의 절반 금액으로 수입은 3배이상, 금리는 년 25% 이상 보장되는 들전만 취급

* 2010년 초 방조제 개공으로 지금이 투자 적기

* 오랜 실무경험으로 매입에서 매도까지 책임중개

- 상가/모텔 투자 물건(지상 5층)
 - 원도음, 중심 상권내 대지 80, 건평 320평 매매가 10억
 - 보증금 4,000만원 월 매출 1,230만 이상

서해안·새만금 지역 전문 중개업소
보 임 공 인 중 개 사

상담전화 : 062-527-8844/010-8004-5900/016-609-5888

부동산투자클럽

T. 011-641-0925, (062) 515-4985

- ▶ 상가건물(롯데백화점 인근, 현 상업중)
 - 대 453㎡ / 건 2011㎡ (사무나+원룸21실+주택)
 - 수익률 15% 이상 매매가 20억(실적 10억, 조정가)
- ▶ 상가건물(완도읍 여객터미널 옆) 대 260㎡ / 건 989㎡ (상가+모텔19실+주택)
 - 수익률 아주 좋은 매매가 10억(조정가)
- 토지(광주호상류-가든식당, 과수원, 임야)
 - 34,830㎡ 매매가 3.3㎡당 12만원(분할가)
- ▶ 농지(무안군 운남면) 23,600㎡ (바닷가, 계획관리지역)
 - 매매가 3.3㎡당 20만원
- 대지(신촌동) 764㎡ (버스승강장 옆, 전철역 5분거리)
 - 매매가 ㎡당 36만원(원룸, 빌라, 물류창고적합)
- ▶ 고시텔(전대후론 체육공원 인근) 대 282㎡ 건 580㎡ (최근준공) 852(월당 월임대료 23만원) 매매가 8억5천
- 대지(복구 신안동) 402㎡ (물류창고최적)
 - 매매가 3.3㎡당 150만원
- ▶ 농지(전.담양군 금성면) 883㎡ (관리지역)
 - 매매가 3200만원(조정가)
- 농지(충효동-광주호상류) 전 1,927㎡
 - 각종 유실수 100여 주식제, 매매가 ㎡당 9만5천(가격조정가)
- ▶ 가든식당(완도신축임공원 입구) 7,665㎡
 - 식당, 숙박업, 단란주점, 체육시설, 농장
 - 모든시설 허가 필 - 매매가 3.3㎡ 당 32만원

경매부동산상담, 대출상담, 각종부동산투자상담

부동산투자클럽 공인 중개 사무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370-3(용봉동 하이마트 옆)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건물 2,000㎡·토지 3,000㎡ 이상 부동산개발(건축허가)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상시 채용하여야 등록 가능!!

◎ 교육일시 및 장소

- 2010.01.21.(목) ~ 2010.01.26.(화) / (총 60시간강의)
- 광주대학교 규곡관 3층 305호

◎ 교육대상

구분	전문인력의 유형
자격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개발업 3년 총사건조사, 건설기술사(고급·특급), 자산운영관리인력 등
학·석사 학력자	4년제 대학 졸업(학위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개발업법인 등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실무경력자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금융기관 등 개발업 관련 종사자, 개발업 관련 법인 대표자 등

* 수강하고자 하는 분들은 등록 전 수강자격 등에 대하여 사무국으로 문의바람

◎ 교육비 : 67만원 (교재 및 점심식사 제공, 강의를 사후한 이후 환불은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www.gred.kr 참조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되려면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에서 전문교육을 꼭 이수하여야 합니다.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

문/외/전/화 www.gred.kr

- 원장 이명규 교수 062)670-2421
- 사무국 김병철 062)233-3119
- 부원장 강동욱 변호사 062)233-3119
- f.062)233-3117